



Preaching Resources  
for Christian Weddings and Funerals

그리스도인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위한 설교 가이드



# 머리말

이 자료는 크리스천 교회(제교회) 총회의 2024 Proclamation Project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 년 Proclamation Project 한인팀은 성도의 결혼과 장례를 위한 예식 가이드를 제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감사로 여깁니다.

저희는 신앙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이 자료가 신앙 공동체의 성장과 갱신을 이룰 뿐 아니라 나아가 성도 간 사랑의 연대와 연합의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성경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 한국어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번역으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독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접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다양성, 평등, 그리고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인종, 신념, 성별, 성 정체성,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차별에 반대하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모두를 존중하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 “하느님”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포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식 가이드는 제자회의 신학을 반영하여 결혼과 장례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sup>1</sup> 이를 통해 제교회 관점에서 예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나누고, 신앙 공동체가 각 순서와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sup>1</sup> Disciples' Identity: We are Disciples of Christ, a movement for wholeness in a fragmented world. As part of the one body of Christ, we welcome all to the Lord's Table as God has welcomed us (<https://disciples.org/our-identity/>).

저희는 이 책을 예배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을 공평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유와 해방, 연합과 사랑의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2024 Proclamation Project Korean Team  
Revs. 어승일, 김백희, 이경목, 김경중, and 최미선  
Advisors: Revs. 강명선 and 김충성

# Preface

This resource has been created with the support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s 2024 Proclamation Project. The 2024 Proclamation Project Korean team is deep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Wedding and Funeral Service Guide with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all Christians across the country.

We are deeply aware that the spiritual growth of the faith commun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life through worship and the Word are possible, and we hope that this resource not only contributes to the growth and renewal of the faith community but also becomes a bridge for the solidarity and unity of believers in love.

The Bible translation used in this project is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This translation was chosen for its balance of fidelity to the original texts and its focus on improving readability and understanding in modern Korean, making it easier for readers from various generations and backgrounds to engage with and deeply understand God's Word.

Moreover, this project was created based on the values of diversity, equality, and inclusion. It oppos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belief, gender, sexual orientation, age, and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and centers on respecting all people from God's perspective. One example of this is the use of “하느님” (Haneunim) instead of “하나님” (Hananim), which aims to emphasize the inclusivity of the Christian faith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ervice guide focuses on expanding traditional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funeral rites while reflecting the theology of the Disciples of Christ.<sup>2</sup> Through this, we aim to enrich the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s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

<sup>2</sup> Disciples' Identity: We are Disciples of Christ, a movement for wholeness in a fragmented world. As part of the one body of Christ, we welcome all to the Lord's Table as God has welcomed us (<https://disciples.org/our-identity/>).

of the Disciples of Christ and to help faith communities deeply experience God's presence, who dwells among us in our relationships, through each other and message.

We offer this book with the hope that all Christians who use it as a resource for worship may encounter the Spirit of God, who loves all people impartially, both within themselves an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We pray that this experience leads to a life rich in freedom, liberation, unity, and love.

2024 Proclamation Project Korean Team  
Rev. Seungil Eo, Rev. Baek Hee Kim, Rev. Kyungmok Lee,  
Rev. KJ Kim, and Rev. Dr. Miseon Choi  
Advisors: Rev. Dr. Myungsun Kang and Rev. Chung Seong Kim

# 성도의 결혼예식 (Christian Marriage)

## 목차

(Table of Contents)

- 생각해보기 (Dig Deeper)
- 예식 순서 (Service Order)
- 예식 지침 (Service Guideline)
- 말씀 가이드 (Message Guideline)
  - : 이성 결혼/재혼 (Marriage/Remarriage)
    - 마가복음 10:6-9
    - 요한일서 4:7-12
    - 창세기 2:20-24
    - 에베소서 4:2-3
  - : 동성 결혼 (Same Sex Marriage)
    - 요한일서 4:7-12
    - 고린도전서 13
    - 전도서 4:9-12

## 생각해보기 (Dig Deeper)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 예식 전 몇 차례에 걸쳐 부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예비 부부는 함께 삶의 가치와 지향점을 점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며, 건강한 관계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결혼식의 여러 전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는 입장 방식이나 폐백, 예단 등의 문화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함께 시작하는 삶의 여정이므로, 예식의 형식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예식을 지향하며, 생태적 관점에서 과도한 생화 장식이나 화환을 지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예식 순서 (Ceremony Order)

# 예식의 순서와 형식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장 (Entrance)

성서 구절들 - 예배의 기원 (Sentences of Scripture)

기도 (Prayer)

의지의 확증 (Declaration of Intent)

성서 낭독 (Reading from Scripture)

설교/주례사 (Sermon)

서약 (Vows)

반지 교환 - 또는 예물 교환 (Exchange of Rings or Other Symbols)

특별 의식 (Special Symbolic Acts)

기도 (Prayer)

주기도문 (Lord's Prayer)

촛불 점화 (Candle Lighting)

성혼 선포 (Announcement of Marriage)

권면의 말씀 (Charge)

축복 선언 (Blessing)

성찬식 (Holy Communion)

축도 (Benediction)

## 예식 지침 (Worship Guideline)

# 예식의 순서와 형식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입장 (Entrance)

하객들이 모였을 때, 적절한 찬양 또는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예식 참가자들이 입장합니다. 보통 결혼하는 커플, 가족, 들러리를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 주례자(목사)가 입장하는데, 순서와 형식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입장하는 동안 사람들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습니다.

### 성서 구절들 - 예배의 기원 (Sentences of Scripture)

예식 집례자는 입장 전이나 후에, 또는 예배를 시작할 때, 아래의 구절 중 하나 또는 다른 적절한 성서 구절을 사용하여 예배의 기원을 합니다.

요한일서 4:16 / 시편 118:24 / 시편 106:1

#### 예식 집례자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임재 안에 모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  
OOO 과 OOO 의 결합을 함께 목격하기 위해,  
그들을 우리의 기도로 감싸안기 위해,  
그들을 위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그들이 함께하는 삶이 더 튼튼해지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하느님의 임재 안에 모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개별적 존재인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도록,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신실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결혼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결혼을 통해 이 두 명의 개별적 존재는  
서로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 내어주는 관계가 됩니다.

건강한 인간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질서 있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탄생과 양육을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거룩한 신비로 결혼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하나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결합하듯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두 명의 개별적 존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습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고, 질서를 이루게 되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결코 쉽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기적인 동기나 욕망을 가져서도 안 되며  
책임과 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결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이 결혼,  
성령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이 결혼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중받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Prayer)

#### [예시 A]

은혜로운 하느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OOO 와 OOO 을 당신의 자비로 보살피소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사 이들이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 맺는 약속을 존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예시 B]

사랑의 본체이신 하느님!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결혼의 예식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이 성스럽고, 복된 잔치를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이 예식의 모든 순서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의지의 확증 (Declaration of Intent)

### - 커플의 확증

집례자는 아래의 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혼 대상자에게 각각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는 일어서서 진행합니다.

*(이름), 하느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약속을 창조하셨고, 명령하셨으며, 축복하신 것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망과 의지로 이 약속의 관계에 들어갈 것을 서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두 명 모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아래의 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당신이 세례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결혼 예식을 통해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 - 자녀들의 확증

만약 커플에게 자녀들이 있고 그들도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서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 당신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가정에 당신의 신뢰와 사랑, 애정을 쏟겠습니까?*

*각 자녀: 네,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례자는 커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신실하며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커플: 네,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족의 확증

집례자는 커플의 가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 당신은 000 과 000 를 축복하며  
당신들의 힘이 닿는 한 그들의 결혼을 지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커플의 가족은 답합니다:

*나/우리는 이들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은 자리에 앉습니다.

- 회중의 확증

집례자는 결혼식에 참석한 회중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의 증인인 여러분은 당신들의 힘을 다해 000 과 000 의 결혼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성서 낭독 (Reading from Scripture)**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래의 기도 또는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느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안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항상 변하니, 변하지 않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리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당신의 은혜로운  
약속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성서 본문을 읽습니다.

## 설교/주례사 (Sermon)

성서 낭독 후 짧은 설교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이드는 18 쪽을 참조하십시오).

## 서약 (Vows)

회중 모두 일어서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례자가 커플에게 말합니다:

*OOO 과 OOO, 두 분은 결혼하려는 의지를 확증했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맞잡고 서약을 통해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로서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OOO 과 OOO 는 서로를 마주 보고 오른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서로에게 서약을 합니다.*

### [예시 A]

한 명이 말합니다:

나 (이름)는 당신 (이름)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사랑스럽고 신실한 배우자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나 (이름), 당신 (이름)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사랑스럽고 신실한 배우자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시 B]

한 명이 말합니다:

하느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나 (이름)는 당신 (이름)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당신에게 신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하느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나 (이름)는 당신 (이름)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당신에게 신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지 교환 - 또는 예물 교환 (Exchange of Rings, or Other Symbols)**

반지를 교환할 때, 집례자는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표시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반지를 꺼내 놓은 후 집례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축복으로 이 반지(예물)들이 000 와 000 에게 끝없는 사랑과 신실함의 상징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을 이 예물을 통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커플은 아래의 A 또는 B 예문 또는 다른 적절한 말을 사용하여 반지를 교환합니다. 결혼 당사자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전통적인 삼위일체 형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반지를 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름), 나는 당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언약의 표시인 이 반지를 드립니다.

반지를 받는 사람이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이 반지를  
우리 언약의 표시로 받습니다.

[예시 B]

각 반지를 줄 때, 반지를 주는 사람이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끊임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이 반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특별 의식 (Special Symbolic Acts)**

[예시 A]

유니티 캔들 의식 (Unity Candle Ceremony)

두 개의 작은 촛불을 하나의 큰 촛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으로,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시 B]

샌드 의식 (Sand Ceremony)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색의 모래를 하나의 병에 섞는 의식으로,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재혼 예식에서는 자녀들도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 (Prayer)**

커플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도 중 하나 또는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예시 A]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느님,  
구원자 되시며 모든 은혜를 주시고 당신이 만드시고 구원하신 세상을 살피시는 주님,  
특별히 000 와 000 을 돌보소서.

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지혜와 헌신을 주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힘을 주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상담자가 되게 하시며  
슬플 때 위로를 주고 기쁨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품는 뜻이 당신의 뜻에 맞도록 이끄시고  
이들의 영이 당신의 영에 합하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들의 일생 동안 사랑과 평화 가운데 자라게 하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사 서로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함께 하는 그들의 삶이 죄악이 있고 깨어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게 하시고  
연합이 반목/소외를 극복하게 하시고  
용서가 잘못을 치료하게 하시고 기쁨이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랑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사 다른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올바르게 키워 당신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이 서약의 증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이들의 삶이 강건해짐을 느끼게 하시고,

이미 결혼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했던 서약을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응원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루는 모든 결속이 당신의 영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사  
당신의 평화와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시 B]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약속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OOO 와 OOO 을 인내, 친절, 온유, 그리고 당신의 성령의 모든 은사들로  
강하게 하시어 그들이 맹세한 서약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이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충실하게 하소서 이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사 평화로우며 환대를 실천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평생 당신을 섬기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오 하느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정과 삶에서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결핍을 경험하는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 사랑, 정의가 속히 임하도록 도우소서. 아멘.

### 주기도문 (Lord's Prayer)

예식 집례자는 모든 참석자들을 주기도문에 초대합니다.

### 촛불 점화 (Candle Lighting)

세 개의 촛불로 이루어진 촛대가 사용되는 경우, 두 명의 결혼 대상자를 나타내는 바깥쪽 두  
촛불을 먼저 점화합니다. 부부의 결합을 상징하는 가운데 촛불을 점화하되 다른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가운데 촛불은 부부의 일치로 나타내고 다른 두 촛불은 그들의 개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역이나 관습에 따라 바깥쪽 촛불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둘이 하나나 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성혼 선포 (Announcement of Marriage)

예식 집례자는 아래의 내용 또는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회중 앞에서,  
OOO 와 OOO 은 서로에게 엄숙한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반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의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그들이 서로의 배우자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집례자는 부부의 오른손을 함께 맞잡습니다. 회중과 집례자가 함께 다음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 권면의 말씀 (Charge)

집례자는 다음 중 하나의 성서 본문을 이용하여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 [예시 A]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12-14, 새번역 참조)

[예시 B]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17, 새번역 참조)

**축복 선언 (Blessing)**

집례자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부부와 회중을 축복합니다.

[예시 A]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키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그럽게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시 B]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둘러싸시기를, 주님께서 당신을 너그럽게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는 경우, 부부는 집례자가 성찬 테이블로 갈 때 빵과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참석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가장 먼저 빵과 잔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순서대로 참여합니다.

**축도 (Benediction)**

집례자는 부부와 회중에게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축도합니다.

[예시 A]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께서 당신을 너그럽게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시 B]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에워싸며, 성령님께서 당신을 지키시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고, 소망이 넘치며, 지금부터 영원히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축도 후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음악이 연주될 수 있습니다.

## 말씀 가이드 (Message Guideline)

### 이성 결혼/재혼 (Marriage/Remarriage)

#### 1. 마가복음 10:6-9

결혼은 단순한 동거나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영적이고 육체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혼 관계가 단순히 법적, 사회적 계약을 넘어서는 깊은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영국 신약학자 James D. G. Dunn 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전통과 일관되면서도, 이를 넘어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결혼을 창조 질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하느님의 왕국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Dunn 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혼의 영적, 도덕적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 2. 요한일서 4:7-12

##### (1) 하느님의 본질로서의 사랑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선언을 통해 사랑이 하느님의 본질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필수적이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냅니다.

##### (2) 사랑 실천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랑 실천의 본이 되셨으며, 이는 하느님 사랑의 화육입니다.

### (3) 그리스도인의 상호 사랑

요한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 [참조]

-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sup>3</sup>

페미니즘 신학자 Fiorenza는 사랑이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적 유대를 넘어서서,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 Marcus Borg<sup>4</sup>

미국 신약학자 Marcus Borg는 이 구절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사랑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 3. 창세기 2:20-24

#### (1) 갈비뼈

- Walter Brueggemann은 ‘여자가 남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여자의 종속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남자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sup>5</sup>라고 역설합니다.

---

<sup>3</sup> Fiorenza, Elisabeth Schüssler. *Bread Not Stone: The Challenge of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1995 참조.

<sup>4</sup> Borg, Marcus. *The Heart of Christianity: Rediscovering a Life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One, 2015 참조.

<sup>5</sup> Bill D. Moyers, *Genesis: A Living Conversation* (New York: Doubleday, 1996), 14.

- b. 갈비뼈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text{צלע}$  (tsela)는 갈비뼈뿐 아니라 ‘side,’ ‘옆’ 또는 ‘옆구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 (side)는 ‘동등성’과 ‘상호성’을 의미합니다.
- c. 여자와 남자는 서로의 동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아담의 말, “나의 뼈, 나의 살”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나의 뼈와 나의 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강조했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자신을 대하듯 동등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 (2) 둘이 연합하여 한 몸

- a. ‘상호성’과 ‘동등성’은 인간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관계성 안에 놓인 것입니다.
- b. 하나와 다른 하나가 연합하여 또 다른 하나가 된 것은 전혀 다른 존재로의 transformation이자 transcendence입니다. 결혼 예식에 사용되는 세 개의 초가 놓인 촛대를 상상해 봅시다. 바깥쪽의 두 초는 성별의 구분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를 뜻합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된 것은 두 성격 또는 두 삶이 더해져 단순히 volume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의 변화 또는 도약, 초월을 의미합니다. 이 낯선 정체성의 인식과 삶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 c.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 좋지 못한 상황(18절)’에서 ‘ 좋은 상황(21-24절)’으로 바뀌었다는 성서의 진술입니다.
- d. 제자회는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과 아름다운 연합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a movement for wholeness in a fragmented world). 연합이 이룰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가 결혼입니다.

### (3) 부모를 떠나

- a. ‘떠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text{עזב}$  (ezav)는 본래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칠게 말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던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등에서 볼 수 있듯 부모와의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약성서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에게 국한되어 있던 책임과 의무가 이제 결혼 상대자에게 이동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결혼해도 멀리 떠나지 않고 같은 씨족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 b. 결혼은 책임과 의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보신에만 집중되어 있던 개인은 이제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이루게 되어 가장 가까운 타인의 삶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시작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의 폭을 넓혀가는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 c. 우리 제자회 교회가 매주 성찬을 나누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하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매이자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상호성’은 타인의 삶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 상호성과 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 4. 에베소서 4:2-3

##### (1) 겸손과 온유

##### a. “겸손하게”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쉬네 (ταπεινοφροσύνη)’라는 단어는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 b. “온유하게”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테스 (πραῦτης)’에서 나온 단어로, 이는 힘의 억제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럽지만 강한 성품으로 분노나 불평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2) 인내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a. “인내하며”

인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미덕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는 자세입니다.

b.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이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인내와 이해를 동반한 용납입니다.

(3)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 주신 하나 됨

a.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 주셔서”

평화는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서로 간에 깊은 신뢰와 화목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b.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다’는 표현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이 일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동성 결혼 (Same Sex Marriage)

### 1. 요한일서 4:7-12

(1) 결혼의 의미: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a. 위의 질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적 물음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두 분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순간 위의 질문에 대한 고민과 내적-외적 싸움을 해왔을 것입니다.

b. 결혼은 위의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며 중요한 답입니다.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지금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내 앞의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결혼 예식입니다. 어쩌면 두 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판단과 혐오의 시선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선택이 아닌,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 특권과 책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선택

- a.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b.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감정이 변하듯 사랑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의지적 행위입니다.
- c. 이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d.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고 끌리는 감정에 “빠지는” 사랑이 아닌,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e. 지금 이 결혼 예식은 여러분의 선택을 축복하고 지지하며 확약하는 자리입니다.

## (3) 실천적 사랑

- a. 우리는 곧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은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중요한 예전 중 하나입니다. 예수는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행하라!” 명령했습니다.
- b. 예수의 십자가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한 희생,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랑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심오한 사상 대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행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c.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본문은 이와 같은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며,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 d.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사랑을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랑의 사이클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 e.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하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매이자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성’은 타인의 삶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 상호성과 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두 분을 본받아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 (4) 행복

무엇보다 두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두 분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의 증인이자 동반자가 된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 2. 고린도전서 13 장

### (1) 주요 어휘

#### a. ἀγάπη (아가페) - 사랑

ἀγάπη 를 배타적 규범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계층 등 인간이 만든 경계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ἀγάπη 는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 b. μακροθυμεῖ (마크로뒤메이) - 오래 참다

이 단어는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위해 싸우는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c. ζηλοῖ (젤로이) - 시기하다

사랑이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에 비추어 질투를 넘어 상호 연대와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말씀 개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a. 사랑은 급진적이고 포용적인 힘이다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초월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본질이라면, 사랑은 모든 정체성과 관계를 초월하여, 포용하는 힘입니다. "배제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며, 하느님의 급진적 환대의 희미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sup>6</sup>

b. 1-3 절: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이 없는 행위의 공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c. 4-7 절: 사랑의 속성

4-7 절은 사랑의 속성(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타자를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이 됩니다. 또한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이웃들을 향하여 겸비해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다양성을 온전히 수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채롭게 창조하신 하느님과 함께 서로를 축복함을 의미합니다.

d. 8-13 절: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

<sup>6</sup> Patrick S. Cheng, *Radical Love: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New York: Church Publishing Incorporated, 2011), 51.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이 모든 생명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경계와 제한은 없습니다. 사랑은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며 모두를 포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급진적인 사랑에 있어 LGBTQI+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십니다. LGBTQI+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sexuality)과 젠더의 경계를 허무는 정도로, 하느님과 LGBTQI+ 사람들 모두 고정된 범주와 경계를 허무는 급진적인 사랑을 발산하십니다. 하느님께 있어 이 범주들은 신성과 인간성, 삶과 죽음의 경계를 포함합니다. LGBTQI+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경계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범주를 포함합니다.<sup>7</sup>

#### e. 사랑을 몸소 실천하라는 부름

고린도전서 13 장은 사랑의 변혁적 힘을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예수님이 급진적 사랑과 경계를 넘는 존재라는 개념을 더욱 강화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세리, 성매매 여성,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나병환자나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성들처럼 소위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셨으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과 대화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 성도와 죄인의 소위 “거룩한”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는 당시 종교적,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셨으며, 그 결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sup>8</sup>

### 3. 전도서 4:9-12

#### A. 도입

해당 본문은 본문이 담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협력과 도움, 연대와 위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결혼, 특별히 동성 결혼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sup>7</sup> Cheng, *Radical Love: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참조

<sup>8</sup> Cheng, *Radical Love*, 79 – 80.

하지만 ‘전도서’라는 성서의 역사적, 신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위로와 도전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 B. 전도서의 역사적 정황

- 전도서는 이스라엘 후기 역사, 특히 페르시아 제국 또는 헬레니즘 초기 (기원전 5-3 세기) 사이에 쓰였고, 유대민족이 겪었던 식민 치하 억압과 신앙적 정체성의 위기를 다룬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식민 치하 문학으로서 전도서는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지배자들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의문과 저항, 그리고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신앙과 문화적 고유성, 독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유효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C. 전도서의 프로그램

- 우리가 주지하듯 전도서의 큰 주제는 ‘헛되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주제는 억압적 상황 속에서 경험한 세상의 불공평함, 그리고 제국이 강요하는 가치관에 대한 저항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식민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암시하며, 그 한계와 무상함을 폭로합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부와 권력, 성공을 중시하는 경쟁적 가치관을 비판하며 겸손과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전도서는 피식민 지배자들이 처했던 환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상상력이란 새로운 사회적 질서와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 4 장 9-12 절에 담겨 있습니다.
- 11 절: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 고대 유대가 처했던 환경뿐 아니라 현시대의 다양한 정치 문화적 환경은 사람들 간의 연대를 깨뜨리고 고립을 조장하지만,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 단순한 생존이 아닌 고난 속에서의 희망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 더 나아가 신앙을 통해 제공받는 영적 위로와도 연결됩니다.

#### D. 결혼

- 결혼은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결혼을 축복하고 지지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의 열매이며 도움과 연대, 위로를 의미합니다.
- 경쟁과 고립, 차별과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향한 의지입니다.
- 전도서 본문이 전하는 하느님의 축복과 희망과 위로를 함께 나눕시다.

# 성도의 장례 예배

(Christian Farewell)

## 목차 (Table of Contents)

- 죽음 이해 (Understanding on Death)
- 생각해보기 (Dig Deeper)
- 예식 순서 (Service Order)
- 예식 지침 (Service Guideline)
- 말씀 가이드 (Message Guideline)
  - : 임종 (One's Last Moments)
    - 요한복음 14:1-4; 25-27
    - 이사야 11:1-10
  - : 사고/모든 갑작스러운 죽음 (Sudden Death)
    - 로마서 12:12-20
    - 예레미아 애가 3:19-26
  - :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End One's Own Life)
    - 열왕기상 19:1-13
    - 누가복음 18:31-34

## 죽음 이해 (Understanding on Death)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삶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고인(故人)과 그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과정입니다.

### 제자회 관점의 죽음 (From Disciples Perspective)

#### 1. 우리는 운동입니다 (We Are a Movement).

제자회의 정체성은 믿음의 내용과 역사 안의 의미를 우선하기보다 “오늘 여기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활동”에 주목합니다.<sup>9</sup> “나와 너”는 운동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 안에서 과거에 살아 숨 쉬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생명을 나타낼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활동이 우리의 움직임으로 흐를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우리”는 운동으로 그 정체성을 표현하며 생명과 죽음은 하나의 호흡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2. 파편화된 세상 안에서 온전함을 위한 (For Wholeness in a Fragmented World)

제자회를 정체화하는 운동은 깨어진 세상이라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판단 혹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문제보다 세상이 온전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제자회가 움직이는 방향성은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파편들의 상황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sup>10</sup> 다양한 생애의 이야기들은 아직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기다림 속에

---

<sup>9</sup> Peter Goodwin Heltzel, James O. Duke, Verity A. Jones, and William J. Nottingham, “Disciples Theol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Chalice Introduction to Disciples Theology*, ed. Peter Goodwin Heltzel (Danvers: Chalice Press, 2008), 28–33.

<sup>10</sup> Sandhya Jha, *Room at the Table: Struggle for Unity and Equality in Disciples History* (Danvers: Chalice Press, 2009), 85–93.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삶과 죽음 또한 온전함을 이루는 연결 안에 끊임없이 의미가 부여됩니다.

### 3.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로서 (As Part of the One Body of Christ)

제자회의 온전을 이루려는 움직임은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라는 완성의 소망에 근거합니다.<sup>11</sup>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지체됨”은 언약으로 지탱되며 이 언약은 서로를 깊어지는 사랑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완성의 소망을 견지하는 굳건한 바탕에서 환대와 연대,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공동체로의 초대이며 죽음은 완성의 소망과 연결되어 공동체가 지탱하는 포용의 사건입니다.

### 4. 우리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제자회의 구체화된 삶의 표현은 환대로 드러납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환대하는 활동이 세상 안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며 죽음은 파편화된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삶의 발자취를 값없이 끌어안는 환대의 현장입니다. 이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말함에 소외되는 존재 - 사람, 생태계,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 는 없습니다.<sup>12</sup> “모두”는 말 그대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화해(pro-reconciliation)를 향한 움직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하고 특별히 구조 안에 공고하여진 습관들에 항거(anti-racism)하도록 인도합니다.

### 5. 주님의 밥상으로 (To the Lord’s Table)

제자회의 환대의 실천은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권위적이지 않고 참여를 통한 해석”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제자회 지체들은 “책임성 안에, 상상력을 활용하며, 비평하는 사고 안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생각하도록 격려받습니다.<sup>13</sup> 제자회 예배의 중심에는 환대하는 밥상으로서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

---

<sup>11</sup> Heltzel et al. “Disciples Theol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op. cit. 30-2.

<sup>12</sup> Belva Brown Jordan and Stephanie A. Paulsell, “The Lord’s Supper,” in *Chalice Introduction to Disciples Theology*, 156-57.

<sup>13</sup> Stephen V. Sprinkle, *Disciples and Theology: Understanding the Faith of a People in Covenant* (Danvers: Chalice Press, 1999), 122-33; 139-40.

초대에는 어떠한 장벽도 차별도 없습니다. 이 주님의 밥상에서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 됨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언약합니다. 이 언약에 헌신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주님의 밥상과 함께 침례는 하나 됨에 참여하는 서약과 실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 됨(unity)을 향한 여정 안에 있습니다.

#### 6. 하느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오시는 것처럼 (As God Has Welcomed Us)

제자회의 하나 됨의 여정에서 환대의 샘 근원은 하느님의 환대에 대한 알아차림, 맛봄, 그리고 누림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세상을 향한 환대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으로 탄생하였고 우리 생명이 다할 때 하느님께 끌어안기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 소망 앞에 “모두”는 평균하며 연결되어 화해의 부름을 받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하느님이 환대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하나 됨에 안기는 소망으로서 죽음”은 새로운 화해의 시작입니다.

## 생각해보기 (Dig Deeper)

목회자/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의 각 계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례 예식”은 고인(故人)에게 은혜롭고 정중한 방식의 “헤어짐 인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영원한 이별의 사건을 함께 연결되었던 기억들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끌어안으며 하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과정, 또는 진실에 대한 기억의 과정으로 이끕니다. 또 고인과 남겨진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운 연합을 제시하여 “다시 볼” 소망의 인사를 하도록 인도합니다.

죽음의 경계는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으나 도시 문화를 경험하는 이들은 경제 철학으로서 자본주의, 욕구 경험으로서 물질주의, 그리고 새로운 권위로서 과학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대하는 이해와 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배의 형식은 비교적 간소화되었지만, 그 중심은 남겨진 자들의 기억과 기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은 기억과 기념의 방편들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과정들(passage)에 참여하는 목회와 사역은 공동체와 관계성을 함양하는 영성적 접근, 즉 영성 과제들을 담아낸 다양한 시, 음악, 미술, 표현 방식 등의 예술적 접근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포함한 예술 관계 자료들(resources)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제와 내용이 너무 교리적이거나 일방적 소통을 보여주곤 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 음악, 미술, 표현의 창작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예식서의 방식과 함께 성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모음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디더라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임종과 장례에 관한 성서 읽기의 새로운 수고를 통해 변화된 관점에서 예식의 메시지와 형식들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활용하는 성서 본문의 해석 방향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언제나 신실한 하느님의 함께 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서 본문의 선택은 고인이 생전(살아 있는 동안)에 좋아했던 구절 혹은 미리 골라 두었던 본문을 사용하거나 설교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본문을

선택하든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고 남겨진 자들의 희망을 깊이 고려합니다.

유족의 요청과 협의 안에서 다양한 예식들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예식은 1) 위로와 기억(과거 회상), 2) 표현과 감사, 그리고 3) 화해와 연합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미래 희망)을 임종과 장례 예식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과거 회상

설교자는 고인의 삶을 통해 개인의 업적 그리고 신앙의 유산—가족, 회사, 학교, 교회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때로 과거 이야기들이 후회 혹은 실수들을 회상하게 할 때, 끊임없는 하느님의 은총에 초점을 두도록 합니다(고후 5:17).

### 2. 미래 희망

고인을 사랑하는 자들은 장례를 통해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헤어짐의 경험은 단편적인 경험이 아닌 연속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현재 진행형인 하느님뿐 아니라 미래에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시간, 장소)로 함께 하실 하느님을 상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례 기간 동안에는 유가족들이 슬픔과 헤어짐을 진정으로 마주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친 후 고인이 없는 빈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목회적 돌봄이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3.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죽음을 겪게 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자연사, 병사, 사고사, 안락사, 자살 등), 관계의 상황도 다양합니다(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 또한 각 민족, 문화, 종교 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밖에 장례 과정에 관한 고인의 의지, 유족의 생각과 환경, 주변 상황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들 또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다양함 안에서 목회자는 고인을 추모하면서 신실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설교자는 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교회 공동체의 가까운 사람들을 “추도사”로 초청하거나 혹은 설교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듣고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례 예배와 설교 메시지는 “종교 회심”의 기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례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 혹은 지역 사회의 이웃과의 헤어짐을 고인과 연결된 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장례는 잃음의 고통과 아픔, 슬픔에 대한 함께 있음과 위로, 고인의 삶에 관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억과 기념의 과정들이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목회자는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복음의 현존을 지역 사회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 다양하고 솔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인과의 헤어짐에 슬퍼하고 고인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인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증오, 복수, 등)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분들을 회피하지 말고 고인과 “화해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추모는 정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성서 본문의 활용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의 하느님이 아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주제를 희망과 확신 안에 전달합니다.

헤어짐의 슬픔에 괴로워하는 가족들과 함께 고인 생애의 이야기들과 신앙 유산을 함께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를 통해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독교 장례에서 천국과 지옥은 대중의 이해와 성서가 말하려는 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제이면서 성도들의 소망과 위로에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이므로 목회자/설교자는 다음을 유의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느님 계신 곳,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 하늘나라”(롬 8:39)라는 이해가 소망과 위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무시하지 않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실현되는 장면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유비(metaphor)와 이야기(narrative)를 찾으면 좋습니다.

지옥은 시공간에 실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옥”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함,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실, 하느님의 평안과 화해의

부족(고통, 사망, 질병, 차별, 단절) 등의 하느님 부재와 결핍으로 이해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옥”은 두려움에 기반한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승리의 맥락에서 연대와 연합의 강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5. 장례 후 추모 예식

장례 예식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여 고인의 신앙과 삶의 자세 또는 고인과의 일화를 나누는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추모 예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며, 고인이 남긴 신앙과 삶의 가치,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나누며,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더욱 생동감 있게 기억하고, 고인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예식 순서 (Service Order)

#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Viewing and Farewell)는 유족과의 상의 하에 장례식 전이나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유가족 또는 고인의 친구나 지인의 추모사(Eulogy or Tribute)를 예식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Hymn)
- 인사말 (Opening Remarks)
- 기도 (Prayer)
- 성서 낭독 (Reading from Scripture)
- 말씀 나눔 (Sharing Message)
- 찬송 (Hymn)
- 추모사 (Eulogy or Tribute)
- 마지막 인사 (Viewing and Farewell)
- 축도 (Benediction)

## 예식 지침 (Service Guideline)

# 예식의 순서와 형식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123편 1-3a절 (새번역)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느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시편 42:1, 2, 5 (새번역)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뵈을 수 있을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밖에 아래의 본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27:1-7

이사야 11:1-9

요한계시록 21:4-7;

다니엘 12:2-3

### 찬송 (Hymn)

다음 중 하나의 찬송을 선택하여 함께 나눕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에게 향하신

### 인사말 (Opening Remarks)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였던 고인 000 을  
추모하며 기억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고인을 잃은 이들과 여기 모인 분들이 연결되어  
위로가 되고 지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면서 함께 연합될 소망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자비가 우리를 위로와 평안으로 연결하기를 기대합니다.

### 기도 (Prayer)

#### [예시 A] - 장례

하늘의 하느님, 우리에게 호흡을 내어 주시고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활동이 오늘 고인 000 전 생애에 묻어 있어  
우리과 더불어 다양한 향취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의 선물들로 슬퍼하고 그리워하며  
또 위로하고 소망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한정된 시간을 부여받은 우리가  
연결과 화해의 인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앞서 연결과 화해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로 살아 낸  
고인 000 을 우리가 기억 안에서 연결하고 화해하려 합니다.

이 기억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활동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연합 안으로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시고 사랑의 활동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예시 B] - 임종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느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느님.  
이 시간, 000 의 임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목도하는  
이 순간, 000 와 육신의 헤어짐의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 성서 낭독 (Reading from Scripture)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성서 본문을 읽습니다.

시 46 편 -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힘의 근원  
시 136 편 - 신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 42, 43, 65 장 -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느님  
마 28:20 -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히 13:8 -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신실하신 주님

성서 낭독 후 짧은 설교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 말씀 나눔 (Sharing Message)

말씀 나눔 이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이드는 44 쪽을 참조하십시오).

### 추모사 (Eulogy or Tribute)

고인의 삶을 기리고, 고인이 남긴 영향과 기억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추모사는 고인의 성격, 업적, 가치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되새기며, 고인을 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회고를 포함합니다. 추모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고인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기며,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삶을 축하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인사 (Viewing and Farewell)

고인의 유해나 초상화를 보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슬픔을 나누고, 고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묵념하거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장례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고인의 삶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찬송 (Hymn)

다음 중 하나의 찬송을 선택하여 함께 나눕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 예수 넓은 품에  
예수 따라가며  
후일에 생명 그칠 때

### 축도 (Benediction)

[예시 A]

여기 그리고 오늘,  
고인을 떠나보내며 슬픔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  
함께 울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고인의 생애를 통해 사랑의 향취들을 전하기로 작정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고인에게 사랑의 활동으로 그 호흡으로 거하시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숨결이

고인과 사랑의 기억을 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더불어 연합하고 화해하여 고인의 사랑의 활동을 완성하려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위로로서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서  
지금 여기의 생애와 우리가 모두 다시 만날 그날에 이르기까지  
포기 없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시 B]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분투하는 〇〇〇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 말씀 가이드 (Message Guideline)

### 임종 (One's Last Moment)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임종의 자리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교우일 수도 있고 혹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교우의 직계 가족 혹은 친지 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임종 관련 목회 심방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임종을 어디에서 맞이하고 있는가: 병원, 집, 요양원 (nursing home)
2. 임종의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고 있는가: 가족, 자녀, 친지, 간호사, 의사...
3. 임종을 앞둔 환자의 의식은 얼마나 있는가: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 의사 표현의 여부, 의식의 여부
4. 임종을 맞이하는 분의 종교/신앙생활 여부: 타 교회 교인 여부
5.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본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가

### 1. 요한복음 14:1-4; 25-27

#### [예시 A]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OOO 를 목도하며, OOO 와의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충분히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서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때로는 성서에 나오는 몇 구절 혹은 특정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슬픔과 아픔을 완벽하게 위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복음서 말씀이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000 와 헤어짐에 슬퍼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은 한순간에 치료될 수 없습니다. 000 와 헤어짐으로 인해 우리 모두 꽤 긴 시간 슬퍼하고 아파하고 비통해할 것입니다. 아마도 상처 나고 멍든 우리 마음에 굳은살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입니다.

그때,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목도하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다졌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헤어짐의 아픈 시간을 함께 견뎌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 [예시 B]

도마 (v. 5):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빌립 (v. 8):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유다(v.22): 주님이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친지/친구/교우/사람과의 이별은 우리 육체의 흉터와 같이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흉터를 남깁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의 예수에게 손바닥의 상처와 흉터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인 “천국의 소망”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슴의 상처와 흉터들”을 통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제자가 예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질문은 그들의 상처와 흉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은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질문할 것이고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빌립과 같이 “실체” 혹은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조건부”이거나; 어느 사람은 유다와 같이 “세상의 방법-효율성”을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했던 이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며 괴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결국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수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집; 있을 곳이 많은 집”이라 합니다. 즉, 누구든,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잊히지 않고, 그리고 환대받는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그리고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교회 공동체, 소그룹, 직장, 학교, 등).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와 일치”는 “완성”보다는 그 “과정”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 천국의 도래”는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처와 흉터들을 내보이는 것이 창피하지 않거나, 조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천국”의 그림자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이사야 11:1-10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한 번에 손에 잡히지 않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 장의 예언이 희망적인 이유는 본문 배경이 되는 기원전 8 세기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 예수의 공생애 1 세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 사상과 기대),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하느님 나라는 이미 도래 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 1 절의 이새의 줄기에서 자라는 “한 싹”은 메시아 예수를 향한 예언적 비유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1 장에서 예수가 “야생동물 (들짐승)과 더불어” 생활한 모습 (40 일 간의 광야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의 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이미” 도래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인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2) 하느님 나라는 화해, 용서, 사랑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더 이상 다툼, 단절, 폭력이 없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적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고인이 내세에서 고통받았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차별 혹은 관계의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는 하느님을 상상하곤 하지만,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은 하느님이 용인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였던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v. 6-8) 이리와 어린양이 공존 하는 곳;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생활하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곳;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곳;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샬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곳.

3) 하느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 (함께 일구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나약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어짐과 죽음 앞에 슬퍼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후에 가는 어떤 장소 혹은 미래에 도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에 남겨진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헤어짐의 슬픔과 비통함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묘사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초현실적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 하느님의 나라를 더욱 희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느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우리 조금 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 사고/모든 갑작스러운 죽음 (Sudden Death)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가족과 가까운 이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는 사고 이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적인 도움이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더 큰 어려움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이웃과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돌봄과 위로는 곁에서 기다리며 함께 지탱하는 역할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하느님을 변호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서 있다는 탄원과 공동체 연대를 독려하는 목소리”를 담으면 좋겠습니다.

## 1. 로마서 12:12-20

### 우리는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서 하느님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앞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구할 뿐입니다. 이 미어지는 한탄과 원망을 들어줄 하늘이 우리 위에 열려 있을 뿐입니다.

(1)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 우리는 쉽게 하느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고 현장에 ‘하느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어떻게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도 말할 수 없고 이 사고가 가져온 상실의 고통이 가진 무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이 지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하지만,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말할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고의 현장 이후, 우리 삶에서 교회가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며 곁을 지키고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지지하고 지탱하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인 안에 품었던 하늘의 씨앗을 품고 함께 걸으며 고인의 남은 생애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함께 울고, 함께 지탱하는 교회로 말합시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지탱한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안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들 속에서 함께 울고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읊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고인의 남은 생애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가족과 여러분께 온 세상의 미안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힘을 낼 수 있다면 교회가 여기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예레미야 애가 3:19-26

###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기다리며

애가는 예루살렘 도시의 함락 앞에 쓰인 고통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애가의 형식을 찾을 수 있는 당시 수메르 신화에서는 도시의 멸망을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하면서 파괴와 함께 재건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애가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특정한 결말을 맺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탄식과 탄원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의 소망을 잃은 절박함 속에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린 듯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는 “겪은 그 고통, 쓴 썩과 쓸개즙”이며 사라지지 않고 우울함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토록 깊은 바닥을 경험하던 예레미야가 전환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의 호흡으로 읽게 되지만 예레미야에게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9 절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슬픔 앞에 너무 서두르지는 맙시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제한하지도 맙시다. 그 터널에서 나오는 것을 도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곁에서 함께 기다립니다.

(2) 주님을 다시 알아가며 희망의 빛은 떠오릅니다.

애가 전반에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탄원이 담겨있으나 동시에 하느님의 비정하게 느껴지는 침묵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탄원 중에 예레미야는 곰곰이 생각하며 떠오른 희망의 이유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 주님의 신실함을 함께 기억해 가면서 가려진 길을 찾고 소망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되살려지는 주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이들의 ‘한결같음’이 소망의 빛을 준비하게 합니다.

(3) 희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다시 함께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은 비추었으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왔다면 구원도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부릅니다. 공동체와 함께 부르는 탄식과 탄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각각 또 함께 걸어가는 노래하는 이들의 삶 어딘가에서 잠잠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림과 주님을 찾음의 길에는 우리를 복이 되도록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의 상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우리의 여정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End One's Own Life)**

어떤 경우이든 누군가의 죽음은 그 삶의 연속이 종말을 고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 일이 그 스스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황망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이라는 상황을 교리와 윤리의 기준에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기 보다 생명을 마감한 지체의 상황과, 연결된 이들의 삶을 향한 연대와 공감의 관점에서 목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자살로 불리는 상황 또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이 약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의 이상반응으로 일어난 경우라면 사고사의 범주에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폭력과 집단 괴롭힘 등의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 관계로 부터 단절되고 방치된 경우 사회적 타살의 피해자 성격이 강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존엄사의 경우도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대한 결백의 표현으로 선택하였다면 그 죽음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이야기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불의한 구조에 항거하거나 동료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또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열거된 모든 상황들은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연결되고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이라는 상황은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 죽음에 이르게 한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고인의 삶과 남겨진 뜻을 주목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하여 그 죽음이 가지고 오는 가족과 지인들의 충격과 슬픔들, 그리고 고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등에 대한 목회의 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둘러싼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고인의 삶을 반추하며 여타의 장례와 다름없이 진행하며 절차에 대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면밀히 살피고 존중하여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보아 하느님의 함께하심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살은 목회자가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목회 공감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삶과 죽음에 관하여 돌아 볼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열왕기상 19:1-13

성서 본문의 18장과 19장의 엘리야는 사뭇 다른 사람 같습니다. 18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에서 대승리를 이루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탄탄대로가 보장된 성공한 예언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오늘 본문 19장의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 호렘산으로 도망간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장 힘든 진실은—고인을 다시 살아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자살이 사회적 문제이고 혹은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라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혹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와 환영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시적인 것들(강풍, 지진, 불: 성장, 경쟁, 변화)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강풍, 지진, 불처럼 나타나야 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다른 하느님의 동행하심과 현존하심을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고인을 추모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혼자 남겨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은 순간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헤어짐은 우리 가슴에 멍과 흉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광야의 여정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다가오는 내일을 함께 견뎌내야 합니다.

## 2. 누가복음 18:31-34

우리에게 죽음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람됨은 이 죽음을 피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의 황망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여러 비유를 마친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수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는 예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이며 예수의 걸음은 죽음을 향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은 죽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주하기 어렵고 연약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우리를 무섭고 두려우며 비참하고 슬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사람됨을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 1. 사람은 죽음으로 세상을 폭로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세상이 어떠 한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구조뿐 아니라 로마 병사들의 충성스러운 열심과 군중들의 오도된 열정, 그리고 겁먹은 사람들의 방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왜곡과 거짓, 그리고 폭력과 차별, 무관심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 혼란과 어둠 가운데 예수는 이 세상이 의인의 죽임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 2. 사람은 죽음으로 연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세상을 정죄하고 망하라는 이야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창조한 연결들이 바로 처음 교회의 탄생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질문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세상을 폭로하면서 그 세상의 공백과 어두운 곳으로 남은 이들을 초대합니다.

고인의 황망한 죽음은 고인을 둘러싼 우리의 약함과 손이 짧음을 애통하게 하지만 동시에 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의 손을 잡도록 우리에게 하느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3. 사람은 죽음으로 생애를 서술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실현되기까지 그 뜻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완성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인의 죽음 앞에 고인의 생애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나며 고인이 품었던 삶의 이야기들은 더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우리의 한 부분으로 남겨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고인의 한 부분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인이 쓰고 싶었던 세상을 우리가 듣고 함께 서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4. 사람은 죽음으로 생명을 초청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향해 걸어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였습니다. 예수가 죽은 거기서 세상의 모순을 읽은 이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지탱합니다. 거기서 어둠을 목격한 이들은 빛을 들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는 죽음에 자신을 넘겼지만, 그의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의 일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고인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연대와 협력으로 부릅니다. 빛을 들고 나아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인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돌아가 품에 안긴 고인을 생각하며 어떤 생명과 빛으로 살아갈지 깊이 생각하며 고인과 연결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문헌 (Bibliography)

- Borg, Marcus. *The Heart of Christianity: Rediscovering a Life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One, 2015.
- Cartwright., Colbert S. and O. I. Cricket Harrison, eds. *Chalice Worship*. St. Louis: Chalice Press, 1997.
- Cheng, Patrick S. *Radical Love: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New York: Church Publishing Incorporated, 2011.
- Fiorenza, Elisabeth Schüssler. *Bread Not Stone: The Challenge of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1995.
- Heltzel, Peter Goodwin., ed. *Chalice Introduction to Disciples Theology*. Danvers: Chalice Press, 2008.
- Jha, Sandhya. *Room at the Table: Struggle for Unity and Equality in Disciples History*. Danvers: Chalice Press, 2009.
- Moyers, Bill D. *Genesis: A Living Conversation*. New York: Doubleday, 1996.
- Sprinkle, Stephen V. *Disciples and Theology: Understanding the Faith of a People in Covenant*. Danvers: Chalice Press, 1999.
- United Church of Christ, Local Church Ministries, and Worship and Education Ministry Team. *Book of Worship: United Church of Christ*. Cleveland, Ohio, 2006 (Reprinted).